



* 등급정보 (계란) *

▷ 30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922만2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92.8%, 1등급은 7.1%, 2등급은 0.1%, 3등급은 0.0%를 차지, 전월대비 21만3천개(0.4%P) 증가, 전년동기(24개 업체, 4천146만6천개)대비 775만6천개(18.7%P) 증가, 금년누계는 5억2천100만5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1억240만1천개(24.5%P)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0년 1~12월	521,005	470,198	90.2	40,459	7.8	5,264	1.0	5,084	1.0
10년 11월	49,009	45,432	92.7	3,422	7.0	31	0.1	124	0.3
10년 12월	49,222	45,677	92.8	3,515	7.1	30	0.1	-	-
왕란	288	219	76.0	69	24.0	-	-	-	-
특란	38,773	35,959	92.7	2,783	7.2	30	0.1	-	-
대란	10,161	9,498	93.5	663	6.5	-	-	-	-
중란	-	-	-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한국계란유통협회,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농림수산 식품부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 제3항2호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 종업원 대상의 교육기관에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식품연구원에 이어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추가 등록됨으로써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 계란연구회,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MOU체결

계란산업발전대책연구회(회장 오정길)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동 소재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체결조인식을 가졌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표조직육성방안으로 신설된 연구회는 그간 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거쳐 계란유통물류규격화 방안 등에 관한 세부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견

을 모아 입찰을 통해 전북대학교 농경제학과 백승우 교수가 주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 산란계 농가 대형화 추세로 전환 중

산란계 산업이 농가는 줄고 사육수수는 늘어나는 등 대형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사육농가수는 1천713명에서 올해 9월 1천538명으로 11.5% 감소했다. 반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5천820만수에서 6천10만수로 3.16% 증가했다. 3만에서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200여명에 달했으며 계란생산량 중 전체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반 농가나 기업 중에서는 70만수 농장을 비롯해 100여만수를 사육하는 기업 등 대형화 추세가 확산하게 드러났다.